

# 브라질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 의견	15

## I. 일반개황

면적	8,516천 km <sup>2</sup>	G D P	17,986억 달러 (2016년)
인구	206.1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 D P	8,727 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eal (BRL)
대외정책	실리주의	환율(달러당)	3.5 (2016년)

- 브라질은 남미대륙 중동부에 위치(남미대륙의 47% 차지)하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9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37배 수준으로 세계 제5위이며, 2016년 기준 인구는 206.1백만 명으로 세계 제5위, GDP는 17,986억 달러로 세계 제9위 규모의 경제대국임.
- 브라질은 철광석, 원유, 농축산물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6년 8월 취임한 테메르 (Temer) 대통령은 친시장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경제회복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아 왔음. 그러나 취임 이후부터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대통령의 부패 연루 의혹으로 인한 퇴진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정국혼란이 가중됨.
- 브라질은 빈곤율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득불평등, 치안불안 및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국불안 등에 따른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MERCOSUR)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EU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f</sup>
경제성장률	3.0	0.5	-3.8	-3.6	0.3
재정수지 / GDP	-3.0	-6.0	-10.3	-9.0	-9.1
소비자물가상승률	6.2	6.3	9.0	8.7	4.4

단위: %

자료: IMF.

#### □ 2017년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 전망

- 브라질 경제는 수출의 40~50%를 차지하는 원자재(철광석, 원유, 농축산물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브라질은 2013년 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에 따라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급격하게 둔화되었음.
-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에 따른 수출 감소, 민간소비 위축, 정치 불안 등의 영향으로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3%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회복, 금융정책 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2016년 2년 간 투자는 25%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3% 확대되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지속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9%를 상회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시작된 2014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6%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2015년 및 2016년에는 연금지출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축소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각각 10.3%, 9.0%를 기록하였음.

- 2017년 경제회복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국혼란으로 인한 연금개혁 지연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세 둔화 예상

- 테메르 정부는 4.5%±1.5%의 목표물가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헤알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9% 내외 수준을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음.

\* 연도별 달러당 환율: 2.4헤알 (2014년) → 3.3헤알 (2015년) → 3.5헤알 (2016년)

- 2017년에는 최근 수년간 지속된 헤알화 가치하락세가 진정되고, 식료품 가격의 안정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4% 중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세 둔화 전망에 따라 2017년 7월 기준금리를 9.25%로 1%p 인하하는 등 최근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음.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준금리는 500bps 하향조정\*되어 한 자릿수 대에 진입하였으며, 금년 중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준금리 추이: 14.25% ('16. 9월) → 14.00% ('16. 10월) → 13.75% ('16. 12월) → 13.00% ('17. 1월) → 12.25% ('17. 2월) → 11.25% ('17. 4월) → 10.25% ('17년 6월) → 9.25% ('17년 7월)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브라질 코스트 (Brazil Cost)

- 고율의 세금, 높은 금융비용, 인프라 부족, 관료주의 등 브라질 코스트\*가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회 전반적인 부대비용을 의미

- 세계은행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브라질은 190개국 중 123위에 불과하며, 멕시코(47위), 콜롬비아(53위), 페루(54위), 칠레(57위) 등 주요 중남미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세금 납부(181위), 창업(175위), 건축인허가(172위), 수출입절차(149위), 재산권등록(128위), 자금조달(101위) 부문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조세부담율(tax burden to GDP)이 33%에 달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40~50% 수준으로 금융비용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브라질의 조세부담율은 중남미 국가 중 쿠바(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선진국인 스페인,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임.
- 브라질은 광활한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교통인프라 부문에서 브라질의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8개국 중 항구 114위, 도로 111위, 공항 95위, 철도 93위 등임.
- 총 도로길이 1.5백만 km 중에서 포장된 도로의 길이는 213천 km (포장도로비율 14%)이고, 철도 길이가 28,538km에 불과하여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주요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남동부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에 집중되어 있어 육상을 통한 내륙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낮은 저축률 및 투자율

- 브라질의 GDP 대비 저축률은 2015년 기준 16.4%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 24.8% 대비 낮고, 페루(21.6%), 멕시코(20.6%), 콜롬비아(18.2%) 등 주요 중남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 GDP 대비 저축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1년 21.1%에서 2015년 16.4%로 감소하였음.
- \* 브라질 연도별 GDP 대비 저축률: 21.1% (2011년) → 20.1% (2012년) → 19.4% (2013년) → 17.9% (2014년) → 16.4% (2015년)
- 브라질의 GDP 대비 투자율은 2016년 기준 15.4%로 낮은 수준이며, 최근 3년 연속 마이너스 투자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10년 GDP 대비 투자율이 21.8%였으나, 2016년에는 15.4%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투자증가율은 2014년 -4.2%, 2015년 -13.9%, 2016년 -10.2%를 기록함.
- 주요 중남미 국가인 페루(26%), 콜롬비아(25.5%), 멕시코(22.7%)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브라질은 원유, 철광석, 보크사이트, 주석, 망간, 희토류, 니켈 등 다양하고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원유 매장량은 126억 배럴로 세계 제15위(중남미 제2위), 생산량은 2,605천 배럴/일로 세계 제10위(중남미 제1위)임.
- 2016년 기준 철광석 매장량은 230억 톤으로 세계 제3위, 생산량은 2.5억 톤으로 세계 제2위이며, 보크사이트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26억 톤, 3,450만 톤으로 세계 제3위임.
- 주석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세계 제3위와 제4위, 망간 매장량 및 생산량은 세계 제3위와 제5위, 희토류 매장량 및 생산량은 세계 제2위와 제4위, 니켈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세계 제2위와 제7위임.
- 그 밖에도 알루미늄, 금, 리튬, 마그네슘, 우라늄 등의 매장량 및 생산량 순위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연간 3억 명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식량창고 중 하나이자 세계 제3위 농산물 수출국이며, 전 국토의 20%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축산물이 풍부함.
- 대두, 오렌지, 커피, 설탕 생산량은 세계 제1위,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제2위, 닭고기 및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 산림 면적의 10%에 달하는 산림 및 정글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임산자원이 풍부하고, 영해에 300여 종의 어류가 서식하는 등 수산자원도 풍부함.

### □ 거대 내수시장 및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 보유

- 브라질은 2016년 GDP 기준 세계 제9위, 중남미 제1위(중남미 전체 GDP의 35% 차지)의 경제대국이며, 인구 2억 명(세계 제5위)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브라질 경제는 2016년 기준 서비스업 73%, 제조업 21%, 농업 6%로 구성되어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브라질 주요 제조업 분야에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 추진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테메르 정부는 재정지출 제한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향후 20년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정부지출 상한법이 2016년 12월 의회를 통과하여 2017년부터 시행중임.
- 연금지급 연령 상향조정 등 연금지급액\* 감축을 위한 연금개혁 법안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음.
- \* 2000년 5% 미만이던 GDP 대비 연금지급액이 2015년에는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연금지급이 브라질 정부 지출의 1/3 수준에 달하는 등 브라질은 세계에서 연금지출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 노동개혁 법안 통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2017년 3월 아웃소싱 법안 발효에 따라 기업의 노동비용이 절감되고, 책임 부담 등이 경감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법안 주요 내용은 아웃소싱 고용 가능 분야를 기존 지원업무(청소, 경비 등)에서 모든 업무 분야로 확대하고, 아웃소싱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아웃소싱 공급업체가 우선 부담한다는 내용 등임.
- 2017년 7월 노동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940년대 이후 70년 만에 노동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노동개혁 법안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한 독립성 및 자율성 부여, 노동 소송요건 강화, 노조회비 의무납부 폐지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됨.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지속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 보유

- 브라질은 거대한 시장규모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되고 있는 중남미 최대 FDI 유치국으로, 중남미 전체 FDI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음.
- 2011년에는 FDI 금액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747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는 789억 달러를 기록하여 증가추세로 전환됨.

- 향후에도 매년 GDP의 3% 초중반 대 수준의 대규모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ECD 가입 신청 (2017년 6월) 및 유전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허용 확대\* 등은 FDI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심해유전 의무 입찰 참여 조항 (최소 30% 지분참여) 폐지

- o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3,625억 달러로 세계 제8위 규모이며, 월평균수입액의 17개월 내외에 달하는 등 풍부한 수준임.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sup>f</sup>
경 상 수 지	-74,839	-104,181	-58,882	-23,507	-28,442
경 상 수 지 / G D P	-3.0	-4.2	-3.3	-1.3	-1.3
상 품 수 지	388	-6,629	17,670	45,037	43,437
수 출	241,577	224,098	190,092	184,453	195,113
수 입	241,189	230,727	172,422	139,416	151,676
외 환 보 유 액	356,214	360,965	354,175	362,505	371,186
총 외 채 잔 액	621,400	712,700	665,100	680,100	691,000
총 외 채 잔액 / GDP	27.7	29.5	37.5	38.4	35.3
D . S . R .	28.5	31.9	49.2	46.9	40.8

자료: IMF, EIU, OECD.

#### □ 경상수지 적자 축소

- o 브라질은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해외 기업들의 과실송금 등으로 인한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됨.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상품수지 흑자국이나, 2014년은 원자재 가격 하락이 시작된 시점으로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5년 및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헤알화 가치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음.



-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전망됨.
-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연간 4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 및 300억 달러 수준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o 수출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2014년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4.2%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상품수지 흑자전환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됨.
- o 2017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와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1% 초반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1% 대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는 브라질의 FDI 유입규모 등을 감안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풍부한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o 2015년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3,54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201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됨.
- o 브라질은 꾸준한 FDI 유입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풍부한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있음.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 o 브라질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30% 후반 수준으로 과중한 편은 아니나,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한 부채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o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80% 내외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에 있음.

\* 중남미 주요 국가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2016년): 멕시코 56.0%, 아르헨티나 51.8%, 콜롬비아 47.5%, 페루 26.3%

\*\* 브라질 연도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66.2% (2013년) → 63.3% (2014년) → 73.7% (2015년) → 78.4% (2016년) → 82.9% (2017년, 전망)

- 공공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지출 중 이자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로 높은 수준이며, 2015년에는 27%까지 상승한 바 있음.
- 다만, 공공부채의 90% 이상이 자국통화 표시 부채로, 브라질 대형은행들의 양호한 유동성 등을 감안시 이들 부채의 만기연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환율변동 위험부담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o 최근 수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를 상회하는 등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 2017년 D.S.R.은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III. 정치 · 사회 동향

#### 1. 정치 안정

##### □ 테메르 대통령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등으로 정국혼란 가중

- o 호세프 (Rousseff)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2016년 8월 취임한 테메르 대통령은 친시장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브라질 경제 회생에 성과를 거두는 등 경제분야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음.
- 테메르 대통령 취임 이후 환율안정, 주가상승, 인플레이션 둔화 등 금융시장 및 경제지표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o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10% 내외 수준의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의 부패 연루\* 등으로 정치분야에서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 쿠냐 (Cunha) 전 하원의장(PMDB)이 최근 부패수사에 연루되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음.
- o 2014년부터 시작된 페트로브라스 부정부패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테메르 대통령의 뇌물 제공 논의 의혹 등으로 정국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페트로브라스 앞 납품 과정 등에서 막대한 뇌물이 오가고, 일부는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당국은 2014년 3월부터 ‘라바 자뚜’(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로 일컬어지는 부패수사\*를 벌이고 있음.
    - \* 사법당국은 260명을 기소하고, 연방법원은 12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
  - 2017년 5월 17일 브라질 유력 일간지 글로부(Globo)가 테메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부패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복역중인 정치인(쿠냐 전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을 승인한 대화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개함.

-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2017년 6월 24일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나, 대통령에 대한 최종 기소 결정은 의회 2/3 동의가 필요함.

#### □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 부상

- o 차기 대선은 2018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테메르 대통령의 부패연루 의혹 등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고조되면서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나, 테메르 대통령은 호세프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잔여 임기(2018년 12월말)를 이어 받음.

-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등 우파 연립여당은 테메르 대통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스트 테메르' 논의에 본격 착수하였고, 브라질사회당(PSB) 등 4개 정당이 연정에서 탈퇴를 선언함.
- 노동자당(PT)을 비롯한 좌파 야당들은 테메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의회에서도 테메르 퇴진 지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으로, 여론조사 기관 다타폴라(Datafolha) 조사결과 상하원 의원 중 테메르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응답은 40%,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였음.

- o 그러나 테메르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국민연설 등을 통해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o 대통령이 퇴진하는 경우 현행 헌법에 따라 의회 간접선거를 통해 차기 대선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며,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통령 직접선거를 위한 조기대선이 가능한 상황임.

- 대통령 탄핵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시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되고 있음.

- 2017년 6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노동자당의 룰라(Lula) 전 대통령(2003년~2010년)이 30% 내외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나,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중\*이며, 유죄 확정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함.

\* 2017년 7월 12일 1심 재판에서는 뇌물수수과 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룰라 전 대통령에게 9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룰라 전 대통령은 항소 방침을 밝힘.

##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 소득불평등 및 치안불안 지속

-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2014년 0.52 수준으로 불평등 소득 분배 상태가 높은 수준이며,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브라질은 138개국 중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29위, 조직범죄 120위 등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또한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 전 6% 대 수준이던 실업률이 2017년 1분기에는 14%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당분간 높은 실업률 지속으로 사회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부정부패 만연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브라질의 부정부패가 높은 세율과 함께 기업경영여건 2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6-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브라질은 비정기적 지급 및 뇌물 111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 131위 등으로 하위권을 차지함.
- 또한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라바 자뚜’ 부패수사가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대규모 시위 지속

- 테메르 대통령의 개혁정책에 반발해 온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2017년 5월 대통령의 부패연루 의혹 보도 이후 테메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 이번 시위에는 약 3만 5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브라질 연방청사 방화 등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가 군병력을 투입할 정도로 과격시위로 평가됨.
- 야권, 시민단체, 노동계는 그동안 정부지출 축소 등 테메르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개혁 정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2016년 12월 및 2017년 4월 브라질리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행한 바 있음.

## 3. 국제관계

### □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교역 등 개방 확대 추진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창설국으로,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 및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메르코수르는 EU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임. 다만, 메르코수르는 민주주의 및 인권 문제 등을 들어 2016년 12월 베네수엘라의 회원자격을 정지한 바 있음.
- 무역확대를 통해 경제침체를 벗어나려는 브라질은 최근 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이 브라질 정부의 우선순위가 대외무역, 특히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 및 신규 협상 체결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자유무역 정책을 적극 추구하고 있음.
- 메르코수르-EU간 FTA는 1999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 협상이 결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협상 진전에 힘입어 1~2년 내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임.
- 메르코수르는 또 다른 지역경제협력체인 태평양동맹\*과도 무역확대 등 협력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2017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태평양동맹간 각료회의에서 역내무역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 노력에 합의함.
  -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2012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o 한편, 브라질은 멕시코, 중국 등에 비해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기준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은 233억 달러, 수입액은 241억 달러로 브라질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8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브라질은 글로벌 생산체인에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美대선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음.

#### □ 브릭스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

- o 브라질은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브릭스(BRICS)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신흥경제 5개국은 정상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브라질의 최대 교역대상국(2016년 브라질 교역액 기준 18% 차지)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6월 중국과 브라질은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한 바 있음.
  - \* 중국이 150억 달러, 브라질이 50억 달러를 부담하며, 조성된 펀드는 브라질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에 투자될 예정임.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시 브라질은 최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브라질이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러한 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브라질에 대한 승인금액 344.7억 달러(단기 64.8억 달러, 중장기 279.9억 달러) 중 연체액은 2.5억 달러(총 승인금액의 0.7%)에 불과함.

### 2. 국제시장평가

#### □ 신용등급 하향 추세 지속

- OECD는 2014년까지 7년 간 브라질 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하여 왔으나, 전반적인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2015년 4등급, 2016년에는 5등급으로 2년 연속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음.
- 국제신용평가사도 최근 수년간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BB 수준의 투자부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 Moody's는 2017년 3월 경제회복, 물가상승률 둔화,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등급전망을 기존 'Negative'에서 'Stable'로 상향조정하였으나, 2017년 5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다시 'Negative'로 하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6.10)	4등급 (2015.10)
Moody's	Ba2 (2017. 5)	Ba2 (2017. 3)
Fitch	BB (2017. 5)	BB (2016.11)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59년 10월 31일 (북한과는 2001년 3월 9일 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67), 이중과세방지협정('91), 과학기술협력협정('92), 관광협력협정('97), 범죄인인도조약('02), 사증면제협정('02), 원자력협력협정('05), 형사사법공조조약('06), 국방협력협정('08), 사회보장협정('15)

#### □ 해외직접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6월 말 누적 기준 74억 달러(279건)로,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제13위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억 달러(비중 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21억 달러(28%), 금융 및 보험업 6억 달러(8%) 순임.

#### □ 교역규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브라질간 교역규모는 79억 달러로, 브라질은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2위 교역대상국임.
- 수출과 수입은 각각 45억 달러, 34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2위 수출대상국이자 제3위 수입대상국임.
-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이며, 수입품은 철광석, 대두, 커피 등임. 특히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제1위 커피 수입대상국임.
- 2016년 브라질 교역금액 기준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세계 6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2번째 교역대상국임.
- 메르코수르-우리나라간 무역협정 개시 공동선언문이 금년 3월 체결되었고, 양측간 FTA 협상이 금년 하반기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FTA 체결시 교역 및 투자확대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4> 한·브라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9,688	8,922	5,495	4,457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
수 입	5,573	4,907	4,059	3,445	철광석, 대두, 커피 등
교역규모	15,261	13,829	9,554	7,90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브라질은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3%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투자 회복, 금융완화 기조 등에 힘입어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물가상승률이 9% 내외 수준을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2017년에는 4% 중반 수준으로 둔화되어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9~10%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에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와 소득수지 및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1% 초반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부터 3년 넘게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부정부패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테메르 대통령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 및 대통령 퇴진 논란 등으로 정국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브라질은 빈곤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및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연한 부정부패와 최근 대규모 시위 발생, 높은 실업률은 사회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은 최근 수년간의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EU, 태평양동맹,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OECD 및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고, 풍부한 외환보유액 수준, 대규모 FDI 유입 지속 등을 감안시 단기간 내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박대원 (☎02-6255-5705)

E-mail: parkdw@koreaexim.go.kr